

6월20일(월)/빌립보서2:1~11 (1)

제목: 명예욕이 전쟁을 부른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항상 충돌하는 것이었다(2~3절). 이유는 경쟁적인 허영심 때문이었다(3절). 빌립보 교인들은 공적인 유익보다 자기 개인의 명예, 출세, 야심을 앞세웠다.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었다. 그러면 바울의 처방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의 실속만 차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다(3~4절).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인간에게는 명예욕이 항상 문제이다. 명예욕은 인간에게 돈 이상으로 큰 유혹이다.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자기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목숨을 건다.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도 누가 자기 개인이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죽어도 불사한다. 오직 이 명예욕에만 목숨을 건다면 타인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타인이 배제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명예욕은 남을 자기 밑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욕 많은 사람은 원수를 많이 둔다. 이 문제는 바울의 처방대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만 극복된다.

6월21일(화)/빌립보서2:1~11 (2)

제목: 예수님은 주인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서로 일치하고 조화하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설명하였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였다(5절). 예수님은 겸손과 복종의 대명사이시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6~8절).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천지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9~11절). 예수님의 헌신은 전 우주가 그에게 예배하는 기적을 가져오게 했다. 예수님의 헌신은 전 우주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르도록 하였다 그 이름은 바로 '퀴리오스' 즉 '주인님'이다(11절). 사람들이 그를 퀴리오스라 불렀을 때 그는 모든 생명있는 것의 주인이요 소유자라는 뜻이었다. 그는 이 세상의 왕들에서부터 땅에 기어다니는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들이 소리를 합하여 그에게 주인님이라고 합창을 한다. 어떤 크리스찬은 이러한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 보다 못한 존재로 여긴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보다 못하지 않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이 만물의 퀴리오스이시다.

6월22일(수)/빌립보서2:12~18

제목: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두는 사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룰 뿐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구원'을 더 공고히 하라고 권면했다(12절). 그들이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소중히 간직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의 마음에 담아두고 행하시므로 사람은 그것을 잘 헤아려야 한다(13절). 사람은 항상 흠이 없고 순결해야 만이 뒤뜰린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굳게 설 수 있다(15절). 이미 믿은 자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다(16절).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13절)에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위'와 '효과적인 행위'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효과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한치의 오차없이 항상 성공적으로 끝맺는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를 사람의 마음에 두고 행하신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과 마음을 늘 심어놓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기 마음에 받아두는 사람이다. 항상 마음이 깨끗이 청소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 그리고 받은 대로 행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다.

6월23일(목)/빌립보서2:19~30

제목: 따뜻한 바울

감옥에 갇힌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을 가졌다(19절). 그러나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그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다(23절). 바울은 또 자기와 함께 동역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25절). 빌립보 교회는 한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곁에서 그를 도우라고 파송하였다. 그런데 만일 그가 돌아온다면 그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랐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귀가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는 비관을 침묵시키고 있다. 바울은 그를 기쁨으로 섬겨주고 귀히 여겨주기를 부탁했다(29절). 바울은 편지에 에바브로디도는 병든 몸이었지만 자기의 충실한 형제였고 동료였고 전우였으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섬겼으며 증명서까지 첨부하여 보냈다(25절, 26~27절, 30절)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몸이었다.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그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고민에 빠져서 타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크리스찬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6월24일(금)/빌립보서3:1~16(1)

제목: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적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였다. “몸을 상해하는 일”(2절)은 할례를 의미하는데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개에 비유하며 조심하라고 하였다(2절).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기야 말로 진정한 할례자라고 하였다(3절). 실은 그도 유대인으로서 출생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혈통 중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다(5~6절). 그런데 그가 은혜의 빛 안에서 눈을 떠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쓰레기요 똥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았다(8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별거숭이가 되어야 한다. 자기가 힘이라고 믿었던 것,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9절). 바울은 율법이나 과거의 자기 신분을 ‘쓰레기’ 혹은 ‘똥’에 비유한 것은 정신적인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가 무너지는 정신적인 충격이 먼저 와야 한다. 우리에게 이 충격이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한 것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